

상제일 일간지의 유일한 골프잡지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덕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권 부킹 1만원 할인
- 3일권 부킹 2만원 할인
- 1일권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www.hodyssey.co.kr 0811320-7700, 7714



‘결전의지 다지고...’

29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전술훈련에 앞서 러닝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다음달 1일 미국과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이형택 첫 32강 진출 웬블던테니스

한국 남자 테니스의 대들보 이형택(세계 랭킹 51위·삼성증권)이 총상금 207억이 걸린 2007 웬블던테니스대회 단식에서 사상 첫 3회전 진출의 쾌거를 이룩했다.

이형택은 29일(한국시간) 오전 영국 웬블던 올 임글랜드 클럽에서 벌어진 2회전에서 29번 시드의 아구스틴 카레리(29위·아르헨티나)를 3-1(7-6(8-6) 6-4 6-7(3-7) 6-3)로 격파하고 2001년 웬블던 무대를 밟은 이후 6번째 도전 만에 32강의 문을 넘었다.

이는 2000년 US오픈에서 16강을 달성한 이후 이형택이 메이저대회에서 올린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다.

이형택은 2004~2005년 프랑스오픈과 2004년 US오픈에서 32강에 진출했었다. 이형택은 이날 3회전 진출로 5천만원(2만 7천파운드)의 상금도 확보했다.

이형택은 체코의 감자 토마스 베르디흐(11위)와 4회전 진출을 다룬다.

광주 동성고 4강 길목 서울 휘문고와 맞붙어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광주 동성고와 휘문고가 제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4강 진출을 놓고 다툰다.

광주 동성고는 29일 동대문구장에서 계속된 대회 나흘째 마산고와 16강전에서 윤도경의 결승 솔로홈런 등 8회에 4점을 한꺼번에 얻어내 6-2로 이겨 8강에 올랐다.

동성고는 2-2로 팽팽하던 8회초 1사에서 4번타자 윤도경이 좌중월 솔로 아치를 그리며 공세를 펼쳤다. 이어 이성원과 송단비, 조우성이 3연속 사사구로 나가 만루가 됐고 오정윤의 스윙스 번트로 1점을 추가한 뒤 2,3루에서 조영우가 우중간을 가르며 3루타를 터뜨리며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6-2 승리를 굳혔다. 휘문고는 이어 열린 경기에서 전주고에 3-2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동성고와 휘문고는 다음 달 1일 오후 12시 8강전을 벌인다.

영록·영성 ‘투톱’ 美 격파 선봉

U-20 월드컵 축구팀 내일 아침 1차전 24년만에 ‘멕시코 4강 신화 재현’ 첫발

한국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강호 미국을 상대로 ‘멕시코 4강 신화 재현’의 첫 발을 내딛는다.

한국 대표팀은 다음달 1일 오전 6시(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올림픽스타디움에서 미국과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벌인다.

미국은 1983년 멕시코 대회 4강 신화를 24년 만에 다시 쓰려는 ‘리틀 태극전사’들이 넘어서야 할 첫 관문이다.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미국과 역대 전적에서 4승2무1패로 앞서지만 1993년(2-2 무)과 2003년(0-2 패) 두 차례 U-20 월드컵의 맞대결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다.

미국 격파의 선봉에는 신영록(수원)-심영성(제주) 투톱이 나선다.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신영록

은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데다 최근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어 조동현 대표팀 감독의 낙점을 받았다. 지난해 U-19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득점왕(5골)을 차지한 심영성은 시즌 소속팀 제주에서도 16경기에 출전, 3골1도움을 올리는 등 꾸준한 기량을 선보이며 이번 대회에서도 대표팀의 가장 믿을 만한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기량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하태균(수원)은 후반 조커로 투입될 전망이다.

미드필더진에는 FC서울의 기대주 송진형과 이청용, 울산 현대의 멀티 플레이어 이상호가 배치돼 공격과 수비의 조율을 맡는다.

스리백 라인에는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최철순(전북)을 중심으로 기성용(서울)과 배승진(요코하마FC)이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 첫 상대 미국팀은
6회연속 본선 오른
청소년 축구 최강팀

미국은 6회 연속(총 11회, 한국은 10회) 이 대회 본선 무대에 오른 강호다.

특히 미국 축구는 전통적으로 청소년 연령대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198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이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지만 200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회 8강, 2005년 네덜란드 대회 16강 등 최근 꾸준히 성적을 냈다.

청소년 월드컵 본선 40경기에서 14승5무21패를 기록했다.

19세 안젤라 박, 단독 선두

박인비·이지영 공동 2위·신지애 5위 ‘코리안시스터스’ 위력

US여자오픈 골프 첫날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46명에 이르는 ‘코리안 시스터스’가 세계 최고 권위의 여자 프로골프대회 US여자오픈 첫날부터 상위권에 대거 포진하며 위력을 떨쳤다.

특히 ‘한류’ 주역으로 떠오른 만 19세 ‘1988년생’ 신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라운드 주인공은 브라질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골프를 익힌 교포 안젤라 박(19)이었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레이스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안젤라 박은 29일(이하 한국시간) 노스캐롤라

이나주 서던파인스의 파인니들스골프장(파 71·6천610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뽑아냈다. 1타 뒤진 2위 그룹은 번개가 내려치는 나쁜 날씨 때문에 1라운드를 채 마치지 못해 선두 고수가 불투명하지만 ‘이브파를 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까다로운 코스에서 유일하게 60대 타수를 낸 안젤라 박은 순위표 맨 윗줄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1988년생인 박인비(19)는 16번홀까지 보기없이 버디 2개를 뽑아내 안젤라 박을 바짝 뒤쫓았다. 장타가 일품인 이지영(22·하이마트)도 12번홀까지 2타를 줄여 공동 2위에 올라 순위표 상위 3명이 모두 한국 선수 차이가 됐다.

특히 안젤라 박, 박인비와 동갑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지존’ 신지애(19·하이마트)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버디 2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내 1언더파 70타를 친 신지애는 5위 그룹에 들어 미국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드라이브샷 페어웨이 안착률 79%, 그린 적중률 72%, 그리고 홀당 평균 퍼팅갯수 1.67개 등 안정된 기량을 뽐낸 신지애는 시즌 첫번째 메이저대회 나비스코 챔피언십 공동 13위를 뛰어넘는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젤라 박, 깔끔한 칩샷

안젤라 박이 2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니들스골프장에서 열린 US 여자오픈 골프 1라운드에서 칩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형편없는 성적’ 위성미의 하소연

“난 이런 선수가 아닌데...”

“내가 이런 (형편없는 성적을 낸) 선수가 아닌데...”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셸 위)는 US

여자오픈 1라운드를 마치고 입술을 깨물었다.

28일 대회 첫날 위성미는 버디는 1개 밖에 뽑아내지 못하고 더블보기 1개, 보

기 10개를 쏟아내며 11오버파 82타를 치는 부진에 허덕였다.

이날 위성미는 페어웨이에 안착한 티샷은 고작 4차례에 그쳐 깊은 러프에서 두번째샷을 치느라 애를 먹었다. 티샷 평균 비거리도 250야드에 그쳐 ‘장타소녀’의 이미지도 살리지 못했다.

정규 타수만에 그린에 붙을 올린 것도 4번 뿐이었고 32차례나 퍼터를 사용해 그린 플레이도 따라 주지 않았다.